

강운 작 '순수형태 - 물위를 굽다'



홍성담 작 '대동세상'

“비엔날레 관람 후 ‘디저트’ 보세요”

광주시립미술관, ‘디저트’ ‘민주, 인권 그리고 광주’ ‘다섯개의 샘’ 전시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세계인의 미술축제 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줄 다양한 전시회를 마련한다.

국제 화단의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비엔날레 기간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를 기념하는 ‘디저트’전(31일~11월14일)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운·권진희·박상화·박설·박정용·신양호·신호윤·양문기·유재명·이재길·이정기·이조흠·이호동·조광석·진시영·최재현·황정후씨 등이 참여해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인 ‘디저트’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예술’을 의미한다. 강운씨는 일체의 기교 없이 일획으로 그친 최소한의 행위를 통해 순수에너지의 작품을 보여주는 ‘일획’ 연작을 선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상태를 드러내



박봉동 작 '근층채집-몬드리안식 구성'

된 이번 전시에는 송영욱·박봉동·홍성담씨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올해는 특히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5·18광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민주화, 인권, 반제국주의 등 역사적 의미를 담은 작품을 대거 전시한다.

송영욱씨는 제일 동포의 삶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렸고, 박봉동씨는 1980년대 치열한 민중미술 작품을 선사한다.

또 80년 광주의 아픔을 묵묵히 담아내고 있는 홍성담씨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그 정신을 일깨워준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도 오는 31일~11월7일 김영화·박동신·박주하·이정석·정상섭씨가 참여하는 ‘다섯개의 샘’전을 연다.

이들은 각각 가족의 샘(김영화), 열정의 샘(박동신), 고향의 샘(박주하), 환상의 샘(이정석), 공존의 샘(정상섭)을 주제로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펼쳐보인다. 문의 062-613-71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작가 대거 참여 광주미술 알리기

는 그의 작품은 창작의 의미와 예술의 개념 등을 포괄하는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또 신호윤씨는 미술관의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종이를 올려서 만들어진 거대한 설치 작품인 ‘수상한 꽃’을 전시하고, 양문기씨는 병풍로고가 새겨진 ‘돌가방’ 연작을 출품했다.

이 밖에 이호동씨는 미술관 유리창 외벽에 설치작품을 전시하고, 진시영씨는 영상작품을 선사한다.

시립미술관은 또 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민주 도시 광주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오는 28일~2011년 2월13일 ‘민주, 인권 그리고 광주’전을 연다.

하정용컬렉터 특별전으로 마련



신호윤 작 '수상한 꽃'



정상섭 작 '꽃의 향연'



송영욱 작 '5-17-80 광주'

우리가곡으로 사랑 나누기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2주년

28일 화순에서 ‘사랑나눔 향연’

매달 한차례씩 모여 아름다운 노랫말과 멜로디가 어우러진 가곡을 불러온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회장 황선욱)가 어느덧 2주년을 맞았다.

조금은 특별한 기념 행사를 준비해온 회원들은 결혼가정 돕기 ‘사랑나눔 가곡의 향연’을 준비했다. 28일 오후 6시 화순군 화순읍 인하연수원.

이번 행사에는 서울, 천안, 용인 등 전국에서 참가 신청을 한 아마추어 성악가 41명이 대거 참여, 아름다운 가곡의 향연을 펼친다. 다양한 아마추어 성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음악 애호가들로 대학생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출연자들은 ‘낙화’, ‘하얀 찰떡꽃’, ‘그리워’, ‘떠나 가는 배’, ‘희망의 나라로’ 등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황선욱 회장



소프라노 김선희

또 초청 성악가로 참여하는 테너 김백호씨와 소프라노 김선희씨는 ‘내 맘의 강물’, ‘그리운 금강산’ 등을 들려준다.

참가자에게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후원회비는 살레시오수녀회가 운영하는 나자렛집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는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광주 호남신학대 내에 있는 카페 티브라운에서 정기모임(회비 1만원)을 갖고 있다.

회비 2만원. 문의 016-694-4592. http://cafe.daum.net/gjkron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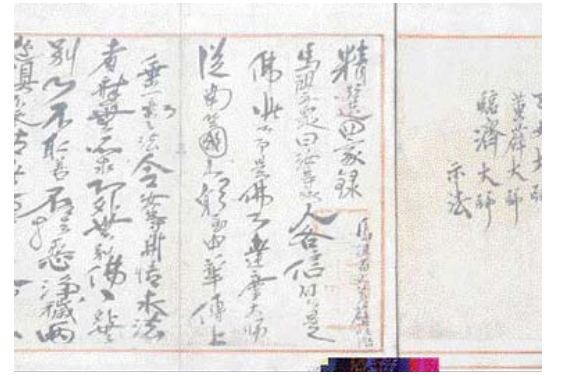
대흥사 서산대사 친필 서첩 보물 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해남 대흥사에 소장된 서산대사의 친필 서첩인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行草精選四家錄)’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초 정선사가록은 조선 중기의 고승이자 승병장인 서산대사 휴정(1520~1604년)이 중국 송대의 선문(禪門)을 대표하는 마조(馬祖), 백장(百丈), 황벽(黃蘗), 임제(臨濟)의 법문을 초록한 서첩이다.

서산대사의 필치는 그와 교류했던 초서 명필 불교 양사언(楊士彦·1517~1584년)의 서풍과 유사해 조선 시대 서예사에서 매우 독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선사가록은 조선 중기 고승의 필적이 매우 드물고 서



산대사가 구국의 승병장이라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연합뉴스

‘국악 한마당’ 소리꾼 이은하씨 초청 공연

광주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이 소리꾼 이은하씨를 초청했다. 9월 2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이은하씨와 제자들이 부르는 ‘가을소리’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 이들은 판소리 5바탕 중 중흥소리 ‘심청가’를 들려준다. 평인이 눈 뜨는 대목까지는 전승인·허덕자·박애화씨 등 제자들이 부르며 마지막 부분을 이씨가 장식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이지선씨와 고수 박치현·이명식씨가 찬조출연한다.

정광수·한애순·성창순씨를 사사한 이씨는 남원춘향제 전국명창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전수교육조교, (재)국악 임방을 진흥재단 이사, 광주시립국극단 명예지도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은하씨

재가불자 리더십 전문교육 광주서 첫 선

재가불자들을 위한 리더십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광광을 받은 ‘M·Y 리더십 클럽’ 프로그램을 광주에서도 만나 볼 수 있게 됐다.

(사)광주주지비행회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제1기 빛고을 M·Y 리더십 클럽’광주서 동구 장동 자비선행회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이름으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사)불교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교육과정과 강사진을 교류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무문스님(백양사 승가대학 학장), 이시우(서울대 명예교수), 박광서(서강대 교수), 우희중(서울대 교수), 소남스님(한국로봇센터) 등 13명이 강사로 참여해 불교이상을 재조명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 15회 강좌로 구성했으며 31일까지 53명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비(교재·저녁 식사 포함)는 40만원이다. 문의 062-234-009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호텔이 있습니다.

금수장관광호호텔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CINUS 시원한 여름 영화와 함께!

상무점	하남점
1관 아저씨 (18세)	1관 아바타 : 스페셜에디션 (12세)
2관 니니미리2(연제)/익스텐더블(18세)/페가(18세)	2관 아저씨 (18세)
3관 인센션 (12세)	3관 죽이고싶은 (18세)
4관 센츄리온 (18세)	4관 라스트에어벤더(연제)/피라냐(18세)
5관 라스트에어벤더(연제)/피라냐(18세)	5관 센츄리온 (18세)
6관 아바타 : 스페셜에디션 (12세)	6관 익스텐더블(18세)/ 페가(18세)
7관 프레데터 (15세)/마법천자문(연제)	7관 악마를보았다(18세)/마법천자문(연제)
8관 피라냐(18세)/골든슬럼버(12세)	8관 피라냐(18세)/골든슬럼버(12세)
9관 죽이고싶은 (18세)	9관 라스트에어벤더(연제)/로이스토리(3연제)/인센션(12세)
10관 악마를보았다(18세)/라스트에어벤더(연제)	10관 프레데터 (15세)

상무점: 1588-7941 | 하남점: 1544-0600